

카드사·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선제적 금리 조절

내달 7일 최고금리 20%로 인하 주요 카드사, 최고금리 변경 안내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비중 축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금리 조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연 20% 초과 대출을 중단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7일 법령상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4%포인트 낮아져 20%로 인한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지난 3월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주요 카드사는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떨어짐에 따라 제2금융권이 금리 낮추기에 나섰다. /유튜이미지

최고금리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삼성 카드는 지난 7일 공지사항을 통해 금융 상품 최고금리 인하 예정을 안내했다.

삼성카드는 "개인회원의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최고금리(이자율 또는 수

수료율)가 23.9%에서 19.9%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대출, 리볼빙, 할부 등에 대해 신규 이용 회원은 최고금리를 19.9%로

인하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이용 회원도 금리가 19.9% 초과할 경우 19.9%로 인하 적용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도 최근 개인회원 대상 수수료율 변경을 공지했다. 다음달 3일부터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19.9%로 인하한다. KB국민카드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현재 최고 23.9%까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3.95%포인트 가량을 낮춘 것이다. 이 외에도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도 다음달 1일부터 최고금리를 19.9%로 인하한다.

저축은행에서도 고금리 대출 비중을 낮추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37개 가운데 22개 저축은행이 연 20% 초과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에는 가계신용대출 취급 저축은

행 36개 중 금리가 20% 넘지 않는 곳은 17개였으나 최근 들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연 20% 이상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들도 취급 비중을 낮추고 있다. 전월 대비 전체 가계신용대출에서 OK저축은행은 연 20% 이상 대출 비중이 22.56%에서 14.65%로 낮아졌다. SBI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OSB저축은행도 각각 13.03%, 0.97%, 0.65% 등 많게는 30%포인트 가량 낮췄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고금리 대출분의 축소와 함께 중금리 대출에서의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카드사와 저축은행에서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카카오뱅크, '新 신용평가모형' 적용

고객 데이터·통신사 통신 정보 반영 중신용대출, 최대 한도 1억으로 상향

카카오뱅크는 9일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용점수(KCB 기준) 820점 이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새 신용평가모형은 지난 2017년 7월 대고객 서비스 시작 이후 쌓아온 카카오뱅크 대출 신청 고객들의 금융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반영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통신료 납부정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정보 등 통신정보를 추가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저신용 및 금융이력부족(Thin-File) 고객들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모형도 개발해 적용했다. 머신러닝(M

achine-Learning) 방법을 적용한 새 신용평가모형은 기존보다 세분화된 평가가 가능해 대출 고객에 대한 변별력 향상과 함께 대출 고객의 범위와 대출 가능 금액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새로운 신용평가모형 적용과 함께 중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금리는 최대 1.52%포인트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했으며, 대출금리는 지난 5월에도 최대 1.20%포인트 인하했다.

신용평가모형 개선도 지속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휴대폰 소액결제정보 및 개인 사업자 매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공동체와의 데이터 협력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내년에는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한 비금융정보를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다.

김광욱 카카오뱅크 중·저신용 고객 대출 확대 TF장(부대표)은 "2500만건에 달하는 카카오뱅크 대출 신청 데이터에 통신정보 등을 반영해 머신러닝 방법으로 개발한 새 신용평가모형은 신용점수 820점 이하 대출 신청 고객들의 신용평가 변별력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고객들에게 더 경쟁력 있는 금리와 대출 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조4380억원이었던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 잔액을 올해 말에는 3조1982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연간 순증 목표는 1조7602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i@



NH농협은행 이상래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첫번째줄 왼쪽 일곱번째)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개최한 'NH디지털 챌린지+ 5기' 스타트업 데이 행사에 참석해 스타트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디지털 챌린지+ 5기, 스타트업 데이

NH농협은행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스타트업 육성·협업 프로그램인 'NH디지털 챌린지(Challenge)+ 5기'와 '스타트업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NH디지털챌린지+ 5기에는 AI/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및 농업, ESG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선발 기업 17개 기업과 기존 참여기업 10개 기업 등 총 27개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올해 10월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농협은행은 선발 기업에게 ▲입주공

간 지원 ▲스타트업 경영진단 ▲산업분야 및 기술관련 전문 교육 ▲법률, 특허, 인사노무, 세무, 투자 컨설팅 등 전문가 상담기회 제공 ▲범농협 사업연계(밋업데이) ▲투자유치 참여기회(테오데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 행사는 이상래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이 참석해 선발 기업 대표들과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또 NH디지털챌린지+ 동문기업이자 농협은행과 협업을 통해 스케일업에 성공한 '엘핀'과 '단비아이엔씨' 대표들의 사례 발표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안내 및 범농협 협업 연계 프로그램 소개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LCK 응원고객 위한 적금 출시

MZ세대와 소통 강화

우리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 e스포츠리그인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콘텐츠를 연계해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LCK 적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LCK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LCK 콘텐츠를 활용한 젊고 역동적인 마케팅을 통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 오고 있다.

우리 LCK 적금은 LCK 10개 구단 중 고객이 응원하는 구단을 직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6개월로 월 납입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에 우대금리 연 1.0%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2.0%다. 우대금리는 고객이 선택한 응원구단 성

적에 따라 최대 0.7%포인트, 가입고객수에 따라 최대 0.3%포인트를 제공한다.

더불어 LoL(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인기 아이템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솔랭 말고 듀오' 이벤트도 진행한다. 친구 2명이 팀을 이뤄 LCK 적금에 가입하고 자동이체 등록 시 선착순 5000팀에게 초월급 게임아이템을 제공한다.

또 경기당 가장 많은 게임머니(Gold)를 모은 선수를 맞이하는 '골드 킹을 찾아라' 이벤트는 응모고객 1만2021명에게 선착순으로 게임아이템을 지급하며, 예측에 성공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인기 게임아이템을 지급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영석 기자 ysl@

KB국민은행

리브엠 반려행복 LTE요금제

KB국민은행 리브엠(Liiv M)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을 대상으로 '반려행복 LTE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반려행복 LTE 요금제'는 데이터(월 11GB + 일 2GB, 일제공량 소진 시 3Mbps속도)와 음성, 문자서비스가 무제한 제공된다. 기본요금은 월 3만 3000원이며,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월 3300원 할인이 적용돼 월 2만 97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반려행복 LTE 요금제'를 개통하는 고객은 맘카(홈 CCTV), 무드등, 간식로봇으로 구성된 스마트홈 펫케어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리브엠만의 특화된 요금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하나銀 "앱으로 신탁서비스 이용하세요"

비대면 서비스 확대

하나은행이 신탁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 스마트폰 뱅킹 '하나원큐' 가입 손님은 원화 및 외화 ELT와 국내 상장 주요 ETF를 살펴보고 가입까지 편리하게 완료할 수 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유언대용신탁 상담도 간편히 신청할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한 은퇴 후 재산관리와 상속 설계도 가능하다.

비대면 ELT 상품은 국내외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를 기초로 원화 상품뿐만 아니라 달러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ETF는 46개 주요 종목을 대상으로 적립식의 경우 최소 5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며, 목표지정형은 가입시 미리 설정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환매 되어 통장으로 입금된다.

또 하나원큐 이용자는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재산관리나 상속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유언대용신탁 상담 예약을 통해 비대면, 대면 채널로 상속 설계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다.

이진영 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하나은행은 다양한 신탁상품과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손쉽게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